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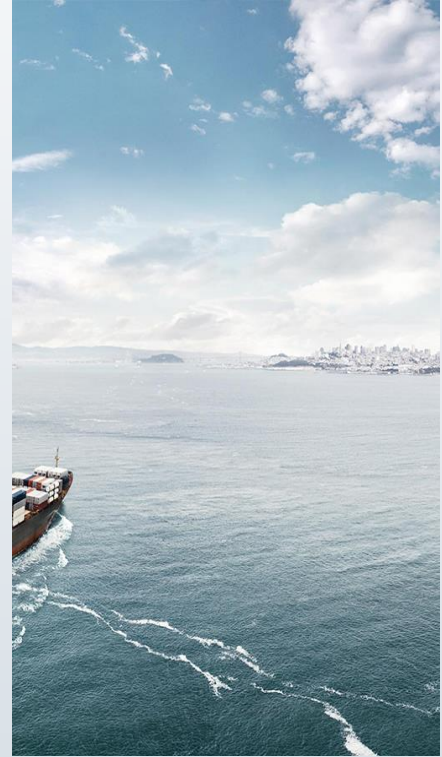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39

Updated March 2, 2021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1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STL News &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ISSUE & TREND

1. 국제 LPG 가격 9 개월째 인상...3 월 톤당 평균 15 달러 ↑

지난해 7 월부터 상승 추세를 보인 국제 LPG 가격이 난방용 수요가 감소하는 3 월에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9 개월 연속 인상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이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3 의 강진과 미국 텍사스주에 30 년만에 몰아닥친 한파로 영향에 따른 것으로 공급보다 LPG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 LPG 가격 인상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달러화 강세, OPEC+의 증산 결정 가능성, 한파 이후 미 정제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 미국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국제 LPG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하는데 제동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SK 가스, E1 등 LPG 수입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사에서 공급받는 3 월 국제 LPG 가격이 프로판은 톤당 20 달러 인상된 625 달러, 부탄은 10 달러 오른 595 달러로 각각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8 일 밝혔다.

톤당 평균 15 달러에 이르는 3 월 국제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해 4 월 국내 LPG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인상폭이 크지 않아 KG 당 20 원 안팎 수준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겠지만 지난 2 월 큰폭의 인상요인이 덜 반영됨에 따라 3 월 국내 LPG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6 일 현재 환율은 전일대비 1.80 달러 인하된 1,108.40 원으로 지난달 달러당 평균 1,110.82 원에 비해 2.42 원 올라 국내 LPG 가격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 월 달러당 평균 1,152.44 원에 거래됐던 환율은 11 월에는 무려 31.2 원 오른 1,121.24 원으로 치솟은 뒤 12 월에는 1,096.53 원으로 24.71 원 떨어졌지만 올해 1 월 1,095.41 원으로 1.12 원 인하된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 ISSUE & TREND

물론 내달 25일까지 환율이 어떻게 등락하느냐에 국내 LPG 가격에 인상폭을 제한시키는 긍정 요인이 될지, 아니면 인상폭을 부추기는 부정적 요인이 될지 여부는 앞으로 등락 추이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LPG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4 월 국내 LPG 가격은 KG 당 20 원 안팎 수준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발생한 미반영분과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인상폭이 소폭에 그치거나 동결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컨테이너박스 값 3500 달러 넘었다... 수출업계 '속앓이'

국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컨테이너박스 가격이 개당 3500 달러(약 395 만원)까지 폭등하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다. 선박 부족과 해상운임 급등에 이어 최근 컨테이너박스 품귀 현상으로 컨테이너박스 가격까지 오르며 해상운송 비용이 급증한 탓이다.

1 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 피트(약 6M)형 드라이 컨테이너박스 신조 가격은 개당 3500 달러를 돌파했다. 컨테이너 박스(1TEU·20 피트 컨테이너 1 개)의 신조가는 지난해 초 1800 달러에서 같은 해 말 2500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3500 달러까지 상승해 90%가량 급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컨테이너박스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 세계 컨테이너박스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CIMC, CXIC 등 중국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미국 항로의 항만 적체가 지속되며 컨테이너박스 품귀현상이 지속된 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북미 시장의 강한 수요로 컨테이너박스가 점점 미국에 집중되는 가운데 항만 적체 현상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밀려드는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항만의 제한적인 노동력이 공(空) 컨테이너 처리보다 수입 컨테이너 하역에 집중되고 있고, 결국 공컨테이너를 회수하지 못하고 아시아로 돌아오는 선박이 증가하며 박스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박스 공급부족 현상은 해운운임 강세의 지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28 일 기준 2775.29 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00.64 포인트 하락했지만 전년동기 대비 여전히 3 배 높은 수준이다. 주요 노선인

I. ISSUE & TREND

아시아~북미서안 노선 운임은 FEU(12M 컨테이너 1 개)당 3968 달러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배 높다.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주요 소비국의 강한 수요와 컨테이너 공급 부족현상은 올해 상반기 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해운운송 비용 증가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올해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임 상승이 해운업계에는 호재일 수 있으나 수출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경우 대형 화주들과 연간 계약을 맺어 그나마 타격이 작지만 장기 계약을 맺지 않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선복 확보와 운임 상승 등 수출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한러항로/ 항만 적체 극심...운임 급등 지속

2 월 한러항로는 항만 적체로 골머리를 앓았다. 컨테이너 장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동절기 결빙과 갠트리크레인(STS)의 고장으로 인해 항만의 반출입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수출 물동량은 뒷걸음질 쳤고, 선사들의 운항 정시성도 크게 떨어졌다.

1 월 부산발 극동 러시아행 물동량은 20 피트 컨테이너(TEU) 1 만 8 천개를 실어날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어났지만, 전월 대비 18% 감소했다. 이는 주 평균 4500TEU 로, 블라디보스토크행과 보스토치니행 화물은 각각 22500TEU 를 기록했다. 지난 달 중순까지 터미널 정체 문제가 보스토치니항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블라디보스토크항도 지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물동량이 지난 달보다 25% 빠져나갔다. 보스토치니항 물동량은 전달 대비 11% 줄어들었다.

한러항로를 서비스하고 있는 선사들마다 상황은 조금씩 달랐다. A 선사 관계자는 "항만 적체 현상으로 인해 정박까지 적게는 일주일에서 보통 10 일 정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스케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극동 러시아를 기항하는 선복 중 약 25%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는 선복들은 다른 항로에 배치하는 등 캐스케이딩(전환배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선사 측은 "항만 적체 현상이 여전하지만 중국 춘절 연휴부터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I. ISSUE & TREND

선사들은 보통 해빙기인 3 월에도 컨테이너 처리 지연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역 처리 능력이 정상화되기까지 꽤 시일이 걸려 적체 현상은 5 월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한려항로를 서비스하고 있는 선사들은 항만 적체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혼잡료(PORT CONGESTION SURCHARGE) 동절기 할증료(WINTER SEASON SURCHARGE) 등을 부과하면서 운임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 월 중순 1600 달러 수준이었던 한려항로의 운임은 2 월 중순 2000 달러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HMM 은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선박을 투입했다. 지난 설 연휴 전 부산항을 출발해 보스토크항으로 향하는 노선에 5000TEU 급 임시 선박을 운항한 데 이어, 2 월 28 일에도 같은 노선에 2100TEU 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러시아는 경제 회복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 외신은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에 항만 도로 관광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프로젝트 관련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삼성중공업, 노르웨이 해양플랜트 수주 사실상 확정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LNG 전문 선사 골라 LNG(GOLAR LNG)로부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FLNG) 수주가 확정되는 분위기다. 발주처인 골라가 한국 조선소 발주를 공식 발표하면서 연내 수주가 유력해졌다.

2 일 업계에 따르면 골라 LNG 는 지난 25 일(현지시간) 4 분기 실적발표에서 마크 L(MARK 1) 전환과 마크 LL(MARK 2) 신축 설계를 위한 신규 FLNG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건조 야드는 한국 조선소로, 마크 LLL(MARK 3) 버전으로 만들어 연간 350~500 만 T 으로 정제할 예정이다.

토어 올라브 트로임(TOR OLAV TROIM) 골라 LNG 최고경영자(CEO)는 "신규 설비 디자인이 준비됐으며, 한국 조선소로부터 턴키베이스의 건조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골라는 또 최초 생산까지 훨씬 더 짧은 리드 타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모듈식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더 작은 용량의 솔루션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I . ISSUE & TREND

골라 LNG 는 그동안 연간 액화역량 500 만 T 급 신조 FLNG 설계(FEED)를 마치고 조선소와 건조 협상을 진행해왔다. 신조 '마크 3'는 노블 에너지사의 이스라엘 레비아탄(LEVIATHAN) 해양 가스전 프로젝트 투입되는 것으로 골라 LNG 와 벨기에 선주사 엑스마(EXMAR) 경합을 통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골라가 마크 3 건조 야드로 점찍은 조선소는 삼성중공업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 년 상반기까지 미국 LNG 사 델핀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유식 LNG 설비 4 기의 사전기초설계(PRE-FEED)를 진행했다.

골라 LNG 가 선주사로 참여하는 미국 LNG 회사 델핀(DELFIN)의 멕시코만 해양가스전 개발계획에 쓰이는 부유식 LNG 설비 설계를 삼성중공업이 담당해 건조원가 대상자로 지목돼왔다.

마크 3 는 '간단-재반복'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초설계를 마친 단 하나의 설계만으로 건조가 진행되는 반복건조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골라는 향후 FLNG 사업을 분리할 기회도 모색한다. 해당 사업 부문에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이사회에서 평가한 후 논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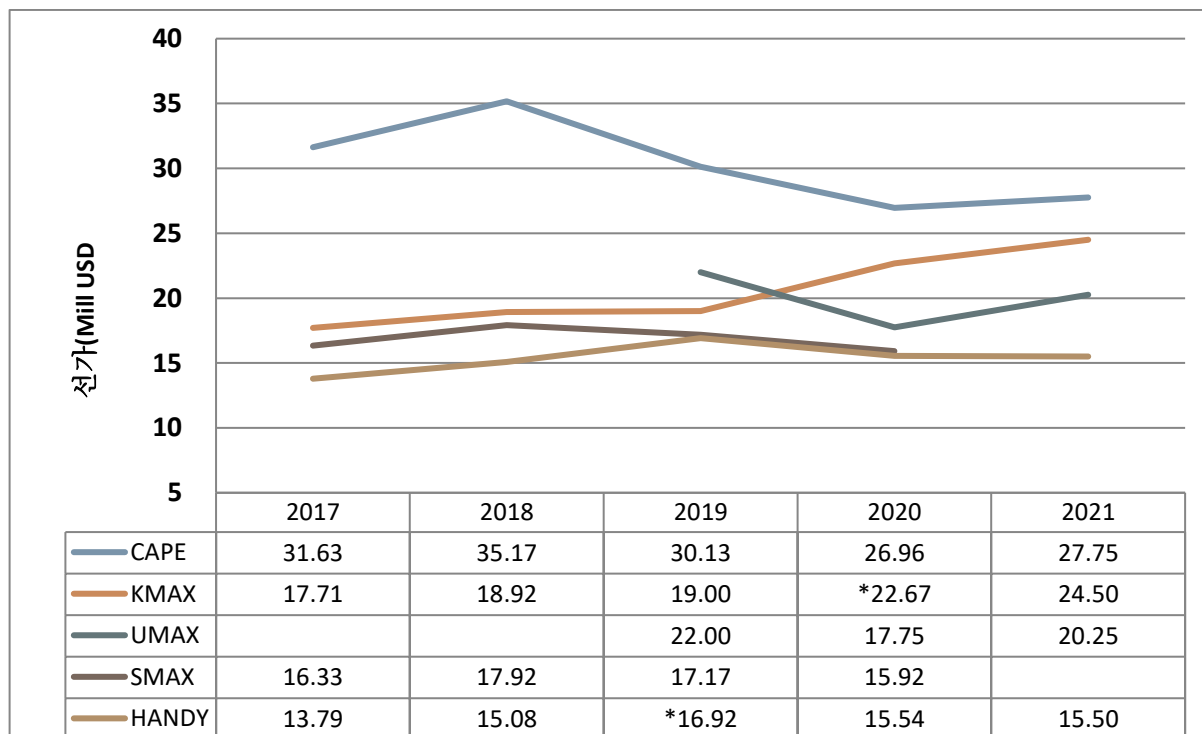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7	2018	2019	2020	2021
Capesize 180K	31.63	35.17	30.13	26.96	27.75
	31.43%	11.20%	-14.34%	-10.51%	2.94%
Kamsarmax 82K (*19 년까지는 76K 기준)	17.71	18.92	19.00	*22.67	24.50
	29.57%	6.82%	0.42%	19.30%	8.09%
Ultramax 60-61K (19 년부터)	--	--	22.00	17.75	20.25
	--	--	--	-19.32%	14.08%
Supramax 58K (20 년까지)	16.33	17.92	17.17	15.92	--
	25.44%	9.69%	-4.20%	-7.28%	--
Handysize 37K (*18 년까지는 32K 기준)	13.79	15.08	*16.92	15.54	15.50
	38.78%	9.37%	12.18%	-8.13%	-0.27%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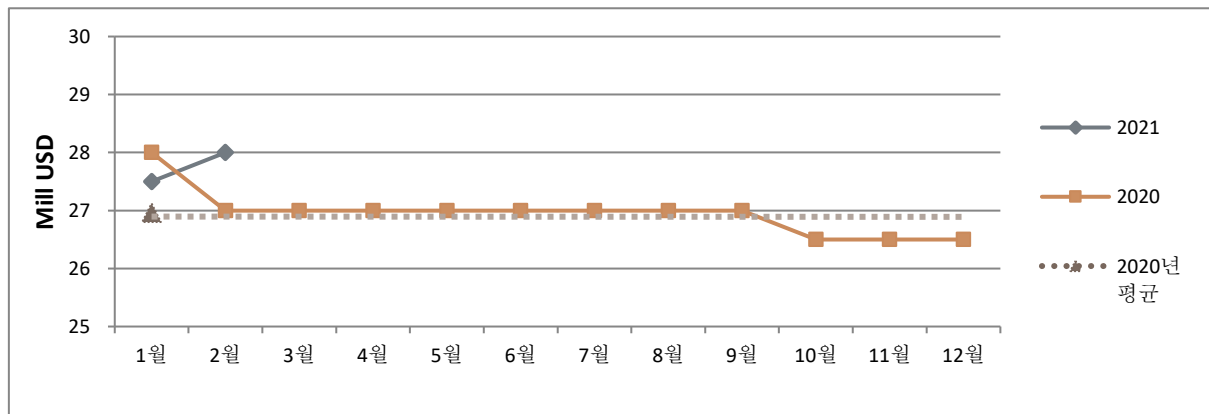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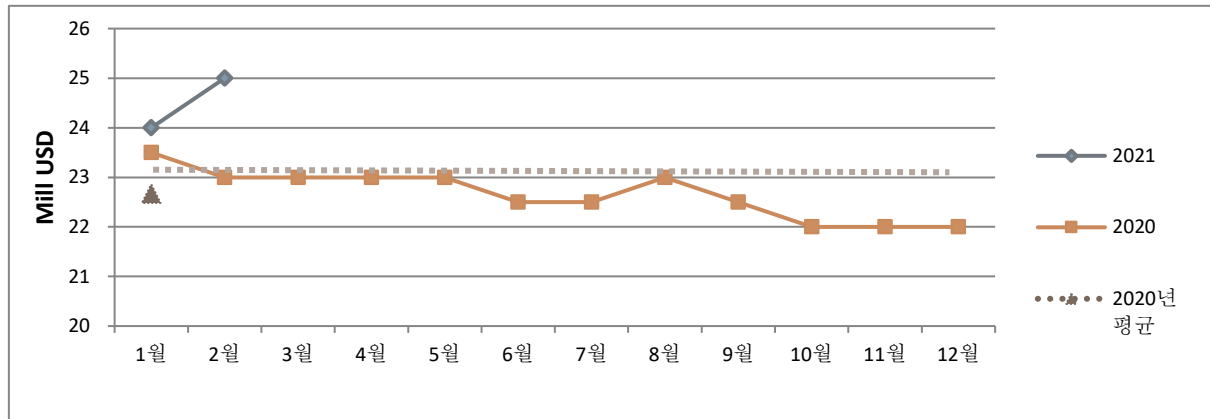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21	CAPE 180K	선가	27.50	28.00					27.75
		전월대비	3.8%	1.8%					--
		전년대비	-1.8%	3.7%					2.9%
	KMAX 82K	선가	24.00	25.00					24.50
		전월대비	9.1%	4.2%					--
		전년대비	2.1%	8.7%					8.1%
	UMAX 60-61K	선가	20.00	20.50					20.25
		전월대비	12.7%	2.5%					--
		전년대비	--	--					--
	HANDY 37K	선가	14.75	16.25					15.50
		전월대비	0.0%	10.2%					--
		전년대비	-13.2%	-4.4%					-0.3%
2020	CAPE (180K)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6.96
	KMAX (82K)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67
	SMAX (58K)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92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5.54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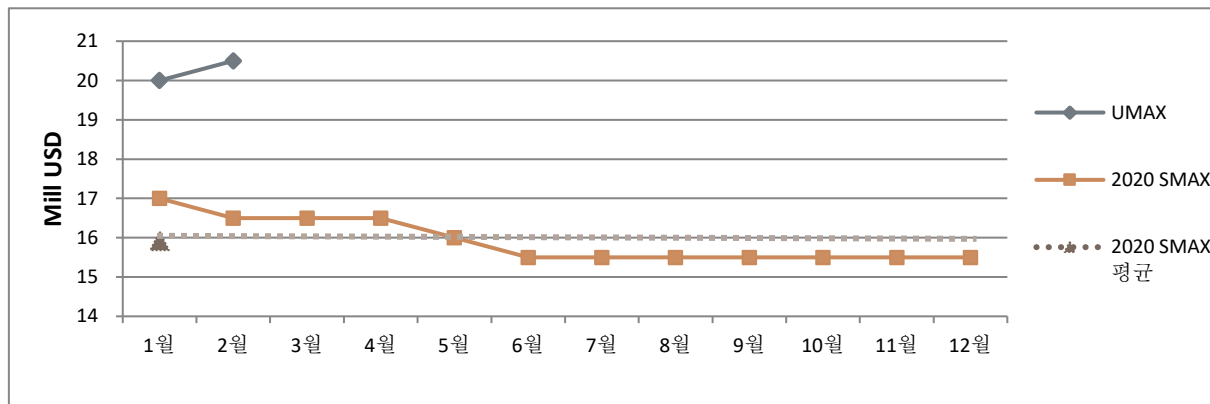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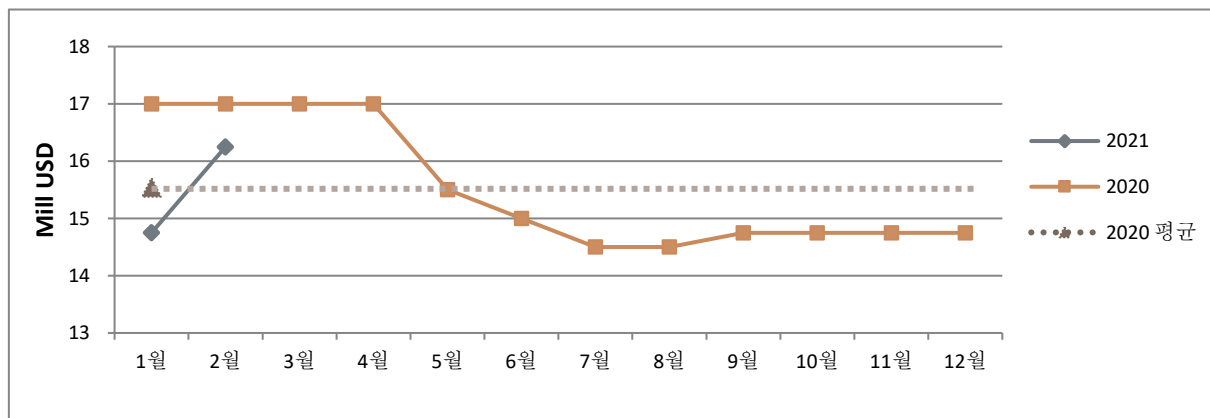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ATLANTIC BEAR	210,000	2021	CHINA	B&W		53	Greece buyer, BWTS fitted
BC	CAPE TRUST	176,925	2006	JAPAN	B&W		17	Greece buyer (Seanergy Maritime), BWTS fitted
BC	GIOVANNI BOTTIGLIERI	93,270	2009	CHINA	B&W		10.25	Greece buyer
BC	EVERGLORY	81,666	2012	CHINA	WART		16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INSPIRATION	80,700	2010	KOREA	B&W		14.8-15	Greece buyer
BC	NORD VENUS	80,655	2011	JAPAN	B&W		16.5	Greece buyer (Globus Maritime)
BC	NAVIOS MARCO POLO	80,600	2011	JAPAN	B&W		16.5	Greece buyer (Globus Maritime), BWTS Fitted
BC	THARYKEY	79,224	2010	CHINA	B&W	C 4x35t	10.1	Undisclosed buyer
BC	VEENUS	79,200	2011	CHINA	B&W	C 4x35t	10.1	Undisclosed buyer
BC	SHER-E PUNJAB	79,200	2011	CHINA	B&W	C 4x35t	10.1	Undisclosed buyer
BC	JIA YU SHAN	58,054	2015	JAPAN	B&W	C 4x30t	20.5	Undisclosed buyer
BC	ADIRONDACK	57,017	2010	CHINA	B&W	C 4x35t	18.8-2EB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BEAUFORT	57,000	2010	CHINA	B&W	C 4x35t		
BC	PURE VISION	56,830	2011	CHINA	B&W	C 4x30t	8.85-8.8	Chinese buyer
BC	KURE HARBOUR	55,832	2011	JAPAN	WART	C 4x30t	11.8	Far Eastern buyer, BWTS fitted
BC	CERULEAN PHOENIX	55,691	2009	JAPAN	B&W	C 4x30t	10.25 -10.6	Norwegian buyer (Atlantica Shipping)
BC	ZHONGYU 89	55,000	2010	CHINA	B&W	C 4x36t	6.98	Undisclosed buyer
BC	GLOBAL FUTURE	52,484	2006	JAPAN	B&W	C 4x30t	7.8-8.1	Singaporean buyer, BWTS fitted
BC	OCEAN BARI-STAR	38,243	2011	JAPAN	B&W	C 4x30.5t	11	Undisclosed buyer
BC	INDIGO SILVA	38,090	2013	JAPAN	B&W	C 4x30.5t	13.7-14	Dutch buyer (Orient Shipping), BWTS fitted
BC	ANGELIC	37,780	2014	JAPAN	B&W	C 4x30.5t	14.5-14.7	Greece buyer, BWTS fitted
BC	CIELO DI SAN FRANCISCO	37,056	2011	KOREA	B&W	C 4x35t	13	Undisclosed buyer

II . BULK CARRIER

BC	REUNION BAY	32,354	2006	JAPAN	MITSU	C 4x30.5t	--	Undisclosed buyer
BC	EDEN BAY	28,342	2008	JAPAN	B&W	C 4x30.5t	6.3-6.8	Egyptian buyer, BWTS fitted
BC	CONTINENTAL TAIGA	28,338	2009	JAPAN	B&W	C 4x31t	6.5-6.6	Far Easter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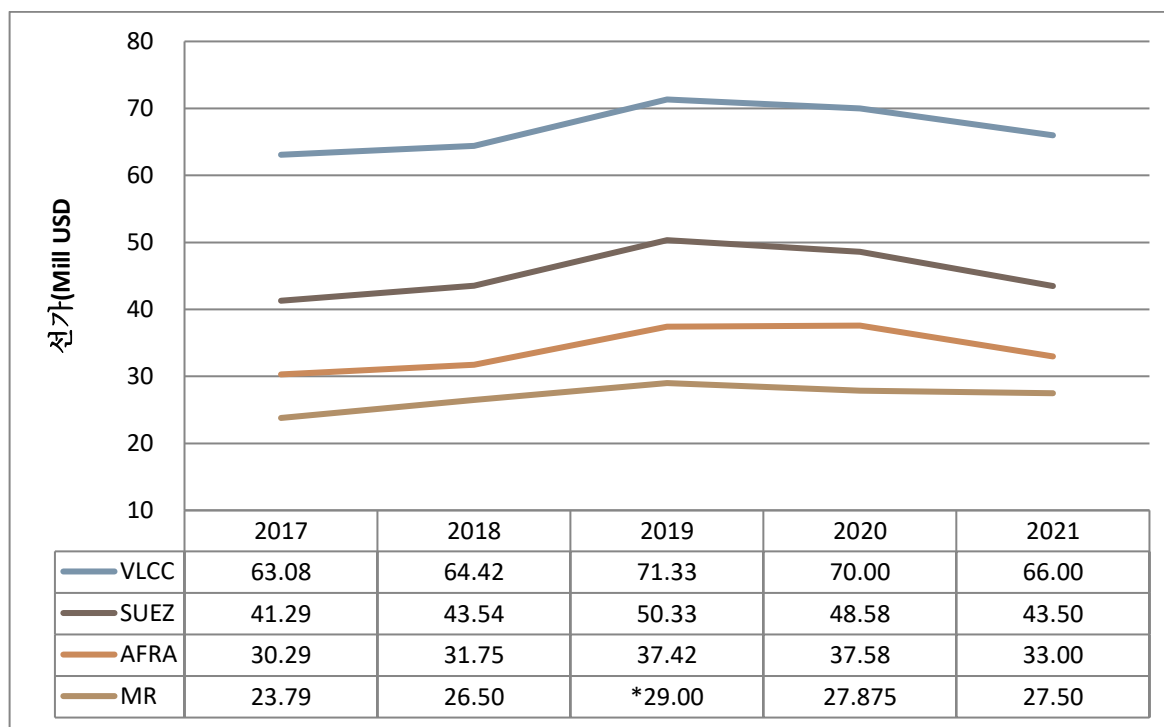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VLCC 310K	63.08	64.42	71.33	70.00	66.00
	-6.89%	2.11%	10.73%	-1.87%	-5.71%
Suezmax 160K	41.29	43.54	50.33	48.58	43.50
	-15.15%	5.45%	15.60%	-3.48%	-10.46%
Aframax 105K	30.29	31.75	37.42	37.58	33.00
	-15.66%	4.81%	17.85%	0.45%	-12.20%
MR 51K *18 년까지는 49K 기준	23.79	26.50	*29.00	27.875	27.50
	-4.19%	11.38%	9.43%	-3.88%	-1.35%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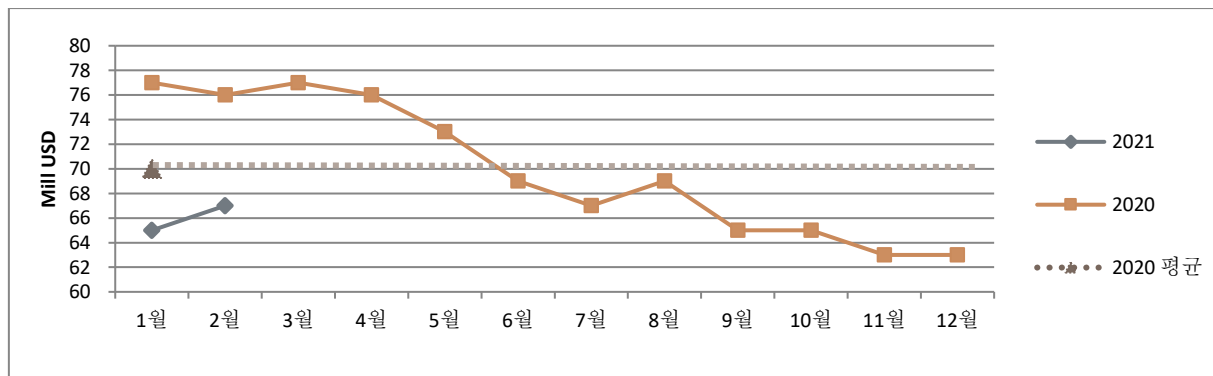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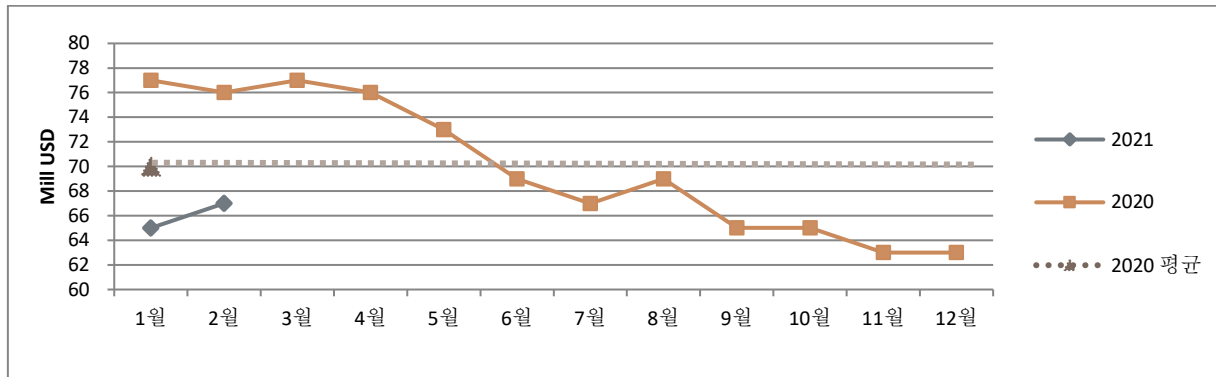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21	VLCC 310K	선가	65.00	67.00					66.00
		전월대비	3.2%	3.1%					-
		전년대비	-15.6%	-11.8%					-5.7%
	SUEZ 160K	선가	44.00	43.00					43.50
		전월대비	2.3%	-2.3%					-
		전년대비	-17.0%	-18.9%					-10.5%
	AFRA 105K	선가	33.00	33.00					33.00
		전월대비	1.5%	0.0%					-
		전년대비	-19.5%	-22.4%					-12.2%
	MR 51K	선가	27.50	27.50					27.50
		전월대비	5.8%	0.0%					-
		전년대비	-8.3%	-11.3%					-1.3%
2020	VLCC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70.00
	SUEZ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8.58
	AFRA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7.58
	MR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7.88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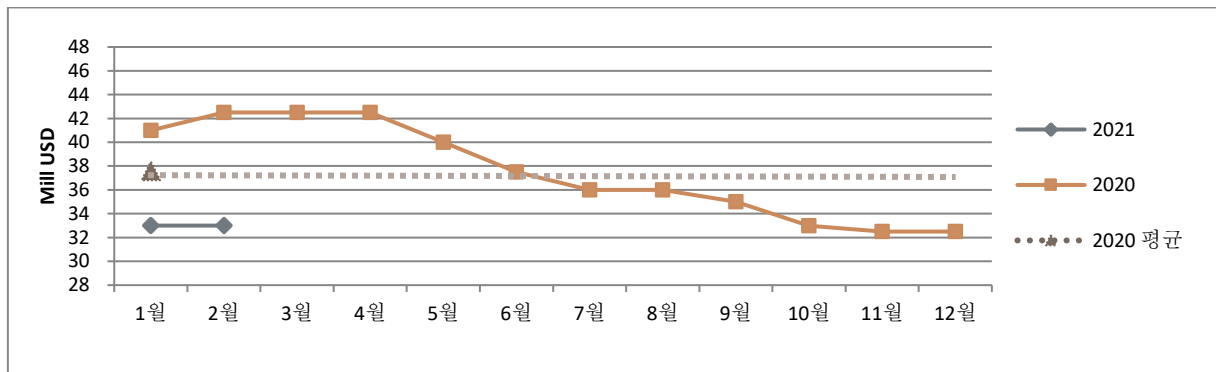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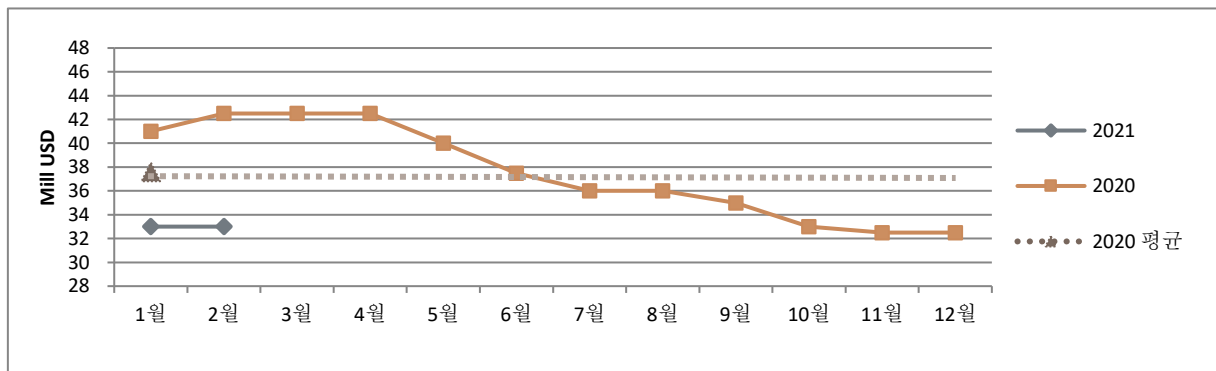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NEWTON	307,284	2009	CHINA	WART		36	Chinese buyer
TANKER	BUNGA KASTURI EMPAT	300,325	2007	JAPAN	B&W		30	Undisclosed buyer
TANKER	HUNTER ATLA	300,300	2019	KOREA	B&W		84.5	UAE (ADNOC) buyer
TANKER	SILIA T	164,286	2002	KOREA	B&W		14.9	Undisclosed buyer
TANKER	NELL JACOB	159,999	2003	KOREA	B&W		15.7	Undisclosed buyer
TANKER	SKS SEGURA	158,784	2007	KOREA	B&W		20-23.75	Undisclosed buyer
TANKER	OCEAN MOONBEAM	50,359	2005	KOREA	B&W		--	Undisclosed buyer
TANKER	FPMC 24	49,499	2010	KOREA	B&W		12	Greek buyer, BWTS fitted, zinc coated
CHEMICAL	MATTHEOS I	45,557	2004	CROATIA	B&W	2	10.5	Far Eastern buyer, Epoxy

2) CONTAINER, REEF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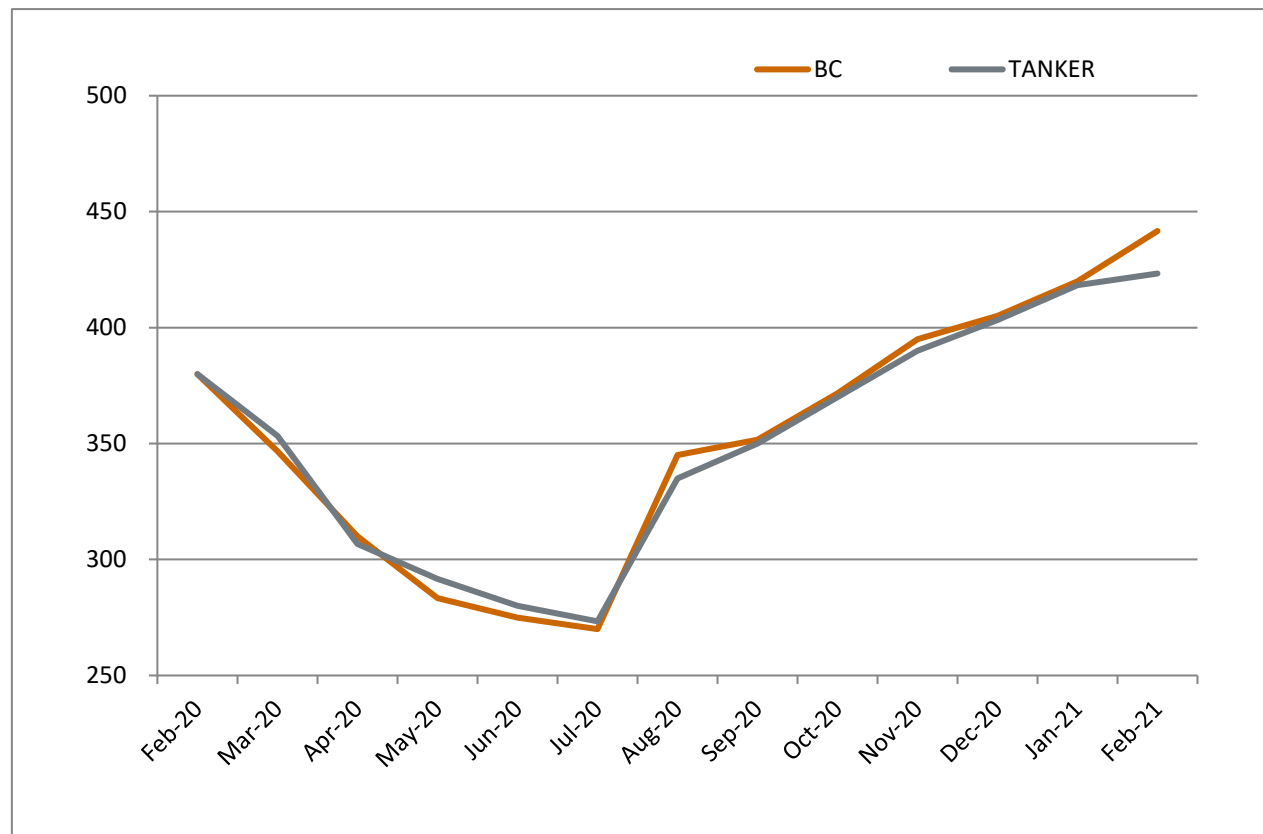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SPIRIT OF SYDNEY	53,093	2007	KOREA	B&W	3,752	TEU	--(6EB)	Greece buyer (Capital Maritime)
CONT	SPIRIT OF SINGAPORE	53,093	2007	KOREA	B&W	3,752	TEU		
CONT	SPIRIT OF SHANGHAI	53,093	2007	KOREA	B&W	3,752	TEU		
CONT	SPIRIT OF MELBOURNE	53,093	2007	KOREA	B&W	3,752	TEU		
CONT	SPIRIT OF HAMBURG	53,093	2007	KOREA	B&W	3,752	TEU		
CONT	SPIRIT OF AUCKLAND	53,093	2007	KOREA	B&W	3,752	TEU		
CONT	ACACIA MAKOTO	24,279	2004	CHINA	B&W	1,858	TEU	6.95	Switzerland buyer (MSC)
CONT	RHL AURORA	23,600	2006	CHINA	B&W	1,732	TEU	6.5	Switzerland buyer (MSC)
CONT	VORONEZH	22,708	2008	POLAND	WART	1,728	TEU	9	Switzerland buyer (MSC)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 LDT)	2019 평균		2020 평균		2021 평균		2020 년 2 월	2021 년 2 월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96.39	-8.4%	344.44	-13.1%	420.00	21.9%	380.00	423.33	1.2%	11.4%
BC	398.75	-9.5%	344.58	-13.6%	420.00	21.9%	380.00	441.67	5.2%	16.2%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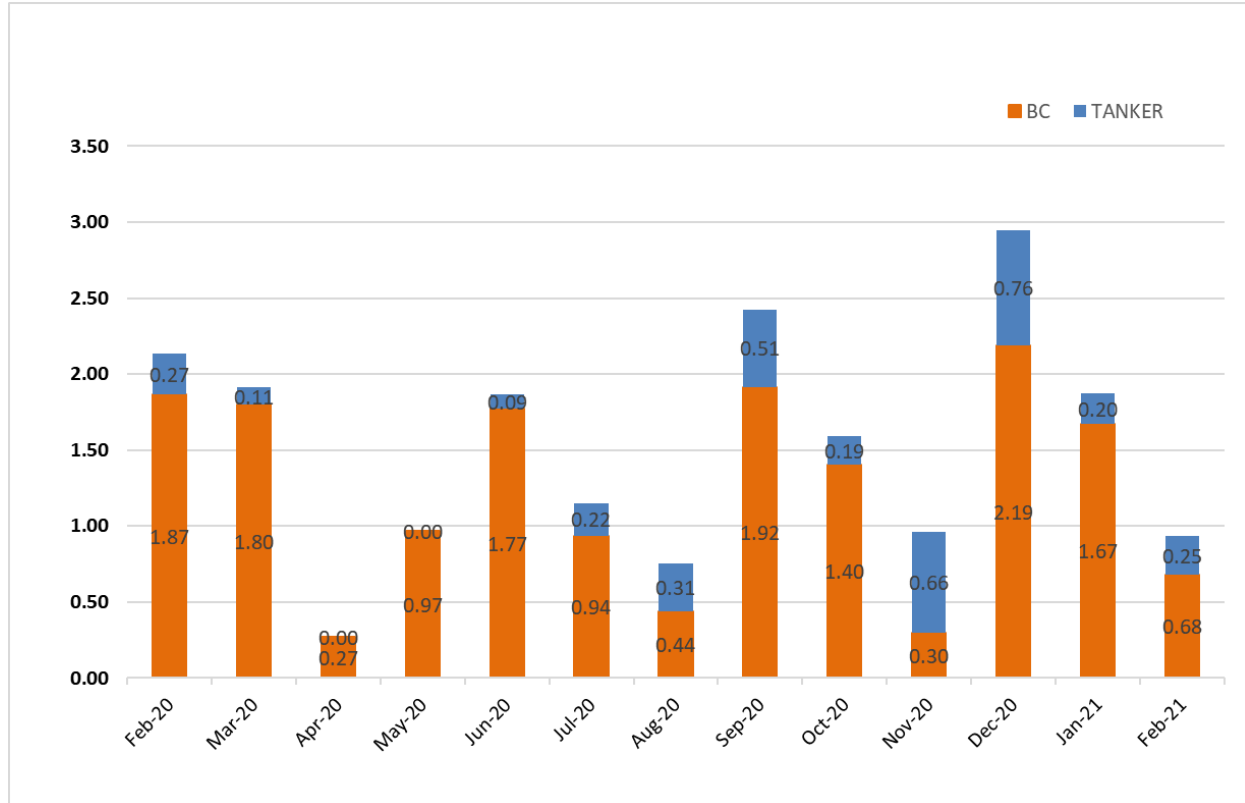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20 년 2 월		2021 년 2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률 (전년대비)	No.	누적률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률 (전년대비)	No.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54	97	3.52	99.6%	108	111.3%	0.27	13	0.25	-6.5%	11	-15.4%
BC	7.45	116	15.13	203.3%	154	132.8%	1.87	22	0.68	-63.5%	18	-18.2%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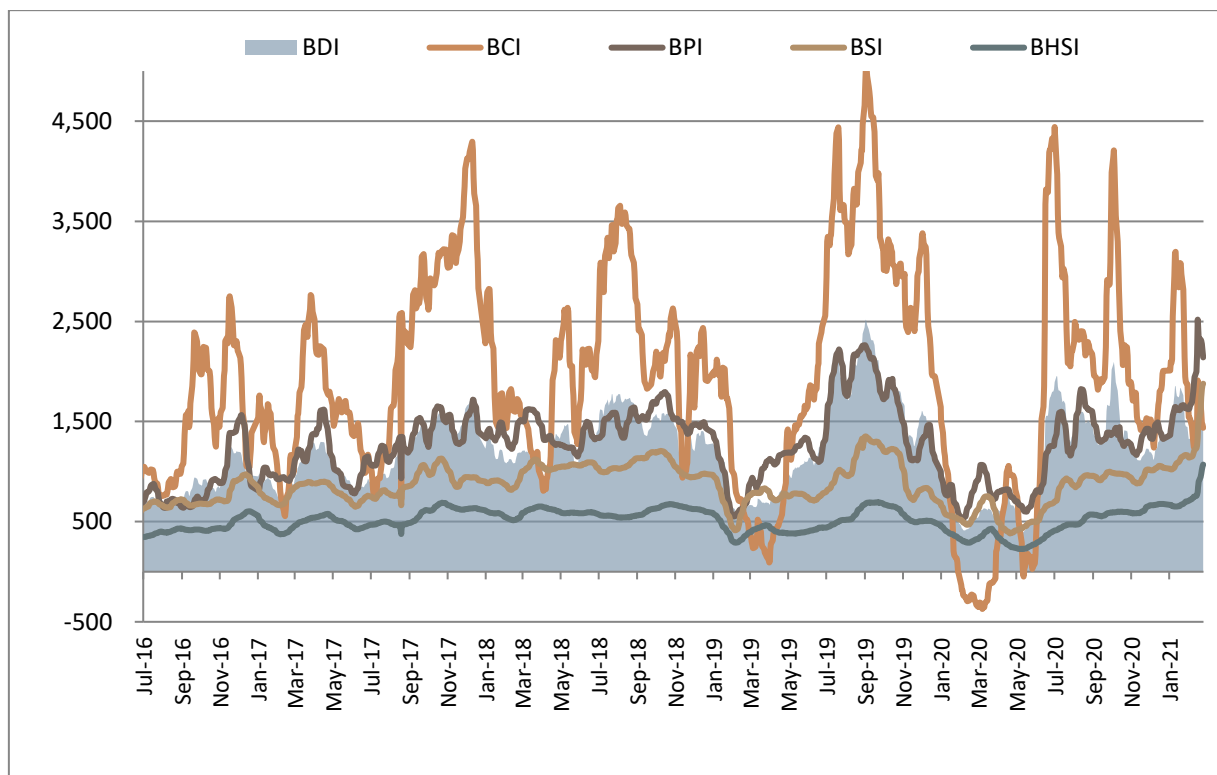
V-1. Demolition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POWER LOONG	69,618	9,804	1992	JAPAN	B&W	440	PAKISTAN
BC	VICTORIYA	41,260	9,590	1995	BULGARIA	B&W	460	PAKISTAN
BC	ORHAN DEVAL	27,562	5,612	1984	JAPAN	B&W	392	BANGLADESH
BC	ORHAN-Y	27,562	5,711	1984	JAPAN	B&W	385-392	PAKISTAN
TANKER	SALA 1	27,892	8,058	1995	SPAIN	B&W	415	PAKISTAN

V.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1-02-26	2021-02-19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675	1,698	▼-23.00	2518	290
BCI	1,439	1,715	▼-276.00	5043	-372
BPI	2,140	2,332	▼-192.00	2518	282
BSI	1,878	1,513	▲365.00	1878	243
BHSI	1,070	901	▲169.00	1070	183



V.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519.00	▲16.00	493.00	▲15.00	497.00	▲14.00
MGO	544.50	▲10.50	543.50	▲14.00	584.50	▲19.50
LSMGO	545.50	▲18.00	528.50	▲14.50	-	-
VLSFO	401.50	▲15.00	385.00	▲21.50	384.50	▲16.00

❖기준일 : 2 월 26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1-02-26	2021-02-19	CHANGE
미국 달러	1108.40	1105.70	▲2.70
일본 엔(100)	1043.15	1046.22	▼-3.07
유로	1349.86	1337.29	▲12.57
중국 위안	171.86	171.71	▲0.15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미라클 모닝

이른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등 자기계발을 하는 것을 뜻한다. 미라클 모닝을 통해 하는 일은 각자 다르지만,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기 2~3 시간 전에 일어나 자신의 생활 습관(루틴)을 행하는 것은 같다.

주로 새벽 4-6 시 사이에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기사] 미라클 모닝, '새벽 독서'로 길을 찾다

20~30 세대에 미라클 모닝(MIRACLE MORNING) 열풍이 불고 있다. 미라클 모닝은 오전(새벽 4~6 시 사이) 일찍 일어나 독서 및 운동 등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등록된 '#미라클모닝' 게시물만 25 만 건이 넘는다. 젊은 세대들이 이처럼 미라클 모닝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계발 강연자이자 책 『미라클 모닝』의 저자 엘로드는 스무 살의 나이에 음주 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열한 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선고를 내렸지만, 그는 이를 극복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비밀을 『미라클 모닝』에 담았다

그는 “역경에 처해 있거나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라클 모닝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을 극복하고,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황을 호전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임을 수없이 증명해냈다”며 “이는 곧 건강, 행복, 인간관계, 경제활동 그리고 그 외에 최우선 과제들을 개선시킨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미라클 모닝의 실천을 위해 저자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향해 아무 생각 없이 돌진해 들어가는 대신, 하루의 첫 1 분을 조용히 앉아 침묵 속에서 목적을 찾으며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이어 내 삶에 가장 즉각적이고도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활동 여섯 가지를 골라 각각 10 분씩 할당해 시도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생긴다는 점이다. 저자가 매일 아침 10 분씩 시도한 습관은 독서, 다짐, 상상, 일기, 운동 등이다. 특히 저자는 아침 10 분씩 투자하는

VI. STL NEWS & INFORMATION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10 분 동안 책을 읽고 그날 당장 실행할만한 아이디어 몇 개를 얻었다"며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나는 의욕을 느꼈다"고 회고한다.

책 『나의 하루는 4 시 30 분에 시작된다』의 저자 김유진도 비슷한 조언을 전한다. 그는 "평소 손이 가지 않았던 책이 있다면 새벽에 읽어보자. 전과는 다른 책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전날 퇴근길에 읽었던 책을 아침에 다시 읽으면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로운 메시지가 눈에 들어온다"고 설명한다. 저자가 새벽 독서로 이뤄낸 것도 책에 담고 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영상 편집 관련 책을 읽고 무작정 편집을 시작해 유튜버로도 활동하게 됐다. 또 『걷는 남자, 하정우』라는 책을 읽고 언젠가 잠원동에서 공항까지 걸어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를 읽고 평소 생각만 하던 특허 등록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한다. 새벽 독서에서 주의할 점은 마지막 장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새벽은 나에게 여유를 선물하는 시간이지 무언가 끝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시간이 아니다.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면 유의미한 회복의 시간을 만들 수 없다"며 "반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한다.

[출처 : 독서신문]

VI. STL NEWS &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biz@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Joovi Park (박주비 대리)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Mob. 010-7794-6182

snp@stlkorea.com

joovi@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 010-4855-8055

biz@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Personal)

H.S. Lee (이현성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Mob. 010-4525-5079

biz@stlkorea.com

hslee@stlkorea.com(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